

전일동향

전일대비 0.70원 하락한 1,349.5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0.70원 하락한 1,349.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달러-원 1개월물 상승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0.80원 상승한 1,351.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소폭 상승 출발하며, 금통위 기자회견 전까지 1,350원 부근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환율은 기준금리의 매파적 인하에 하락 전환하며, 1,345원 대까지 레벨을 낮췄다. 오후장에서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에 환율이 상승하여, 1,349.5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 중 변동 폭은 5.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6.78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51.00	1352.00	1345.40	1349.50	1348.60
엔화	908.58	909.20	904.28	904.71	-	
유로화	1476.22	1479.78	1471.76	1475.8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7	-6.38	-12.71
결제환율(수입)		-0.91	-5.18	-10.89	-20.0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달러가치 지속에...1,34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49.5) 대비 0.25원 상승한 1,347.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경제지표 부진에도 달러 지지력에 하락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9월 PPI 상승률은 전월비 보합으로 예상치(0.1%)와 이전치(0.2%)를 하회했다. 9월 근원PPI는 전월비 0.1% 상승하며 예상치(0.2%)와 이전치(0.3%)를 하회했다. 미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잠정치)도 전월보다 1.2p 하락한 68.9로 예상치(70.9)를 하회했다. 그러나 달러스 연은 총재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발언 등에 달러는 강보합을 보였다. 이에 달러인덱스는 0.03 상승한 102.91으로 마감했다. 미국 2년물은 0.10bp, 10년물은 3.80bp 하락해 각각 3.960%, 4.102%를 기록했다. 한편 주말간 발표된 중국 주택경기 부양책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투심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 엔화는 BOJ의 추가 금리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 등에 약세를 보였다. 지속되는 달러가치의 영향에도 아시아 통화 약세에 연동되어 금일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업체의 고점매도 및 국내증시 외인 순매수 역시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는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46.00 ~ 1352.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963.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25원 ↑
	■ 美 다우지수 : 42863.86, +409.74p(+0.9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9.1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5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